

좋은 사람들의 좋은 글을 보냅니다..
오늘의 아침편지

★ 순간 순간 잘 살아야 되는 이유 ★

사람은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는 거야.
순간순간 잘 살아야 되는 이유지.
C선배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서늘했어.
살아오는 동안 어느 세월의 갈피에서 헤어진 사람을
어디선가 마주쳐 이쁨도 잊어버린 채
서로를 알아보게 되었을 때,
그때 말이야.
나는 무엇으로 불릴까?
그리고 너는?
- 신경숙의《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중에서 -

* 잠깐 스치듯 했데도
금세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한 미소가 예뻐던 '그녀'. 활기가 넘치던 '그'.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던
'그녀'. 밝게 인사를 하던 '그'.
아무리 오래 지나 스치듯 만나도
몰라볼 턱이 없습니다.
어쩌면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녀', '그',
제가 만난 그 모든 모든 사람에게
오늘도 좋은 기운만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보시니 참 좋았더라 / 이 그림을 내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기도해요



광양사랑의교회

<http://kysarang.org/>

한국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국교회는 꿈이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예수로 이 땅을 덮는 꿈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구제하며 전도합니다.
한국교회는 전국을 경험하며
전국을 확장하는 중입니다.
한국교회는 우는 이와 함께 울고
웃고 있는 이와 함께 웃고 있습니다.
어머니 품 속 같은 한국교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로 나가서서 주님 다스림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세요.
이 아름다운 한국교회 중 하나인
광양사랑의교회를 소개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순천노회 광양남시당 소속
설립일 : 2004.4.12
545-881 전남 광양시 중동 1617-10번지
<http://kysarang.org/> www.smileman.info
☎ 061-793-1294(교회) / 794-7130(사택)
담임교역자 웃는사람 라종열목사 (010-5686-3626)

• 광양사랑의교회는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성령님이 충주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
인 공동체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이 꿈꾸시며 성령님
이 충주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 광양사랑
의교회의 꿈입니다

• 광양사랑의교회는

모든 성도가매일성경(성서유니온)목상지로 매일
묵상하는 교회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이 같은 본문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
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같은말 같은마음 같은뜻 같은열매

형제들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
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
전히 합하라(고전1:10)

• 광양사랑의교회는

개약개정판 성경과 21C새찬송가를 사용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일 낮예배	주일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30분
어린이예배	주일 오전 9시
청소년부예배	주일 오전 9시
삼일밤예배	수요일 오후 7시30분
민들레주부목상모임	금요일 오전 10시
목상나눔모임	나눔터별 경향시간
화요성경학교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광양사랑의교회가 후원하는 곳

국제비전선교회 김경식선교사(스리랑카) SU 에스라



GwangYang SARANG Church | kysarang.org

• 광양사랑의교회 이야기 •

Since 2003MCC 2007GSC 제12권20호 부활절일곱번째주일 2015년5월17일



행복한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행복한 기억은
사는동안 받을 수 있는
제일 고마운 선물이니까요
고마워요
영화 <좋은 날_One Sunny Day> 중에서



사랑의 전도편지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세요

가난할 때가 있었어요. 맘이 어찌나 가난한지 밥을 먹어도 허기가 지고
기도할 힘도 없었지요. 건강도 형편도 힘들고 버겁던 어느 날,
남편의 눈에 감자탕 집 5층에 있는 조그만 교회가 들어왔어요.
이른 새벽에 찾은 교회의 말씀을 통해 남편은 위로를 받았고
그 때부터 우린 교회와 가족이 되었지요. 벌써 열여덟 해가 지났네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기억할 수는 없으나
지금 누리는 건강과 넉넉함과 영혼을 꼭 채우는 배부름을
교회로부터 공급받고 살아왔음을 고백해요.

종일 일하고 돌아가면 먹고 쉬고 자고 회복할 수 있는 집이 있듯,
세상일로 지치고 피곤할 때 돌아가 쉴 수 있는 교회가 있어 감사해요.
잠으로 회복할 수 없고, 음식으로 채울 수 없는 배고픔이 있거든요.
교회 품에 안겨 말씀을 먹고, 기도로 짐을 내려놓고 나면
다시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얻어요. 교회가 있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요.
너무 힘이 들 땐 밥을 먹는 일조차 힘이 들 듯,
깊은 고난 중엔 기도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지요.
그럴 때 대신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교회가 있었어요.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온 몸이 고통을 함께 느끼듯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말이지요.
내 몸 같은 교회가 있어 행복해요.

세상은 내 가난함을 채워주지 못하나 예수님의 몸 되신 교회를 통해 배부름을 얻고,
내 고난이 아프고 힘들었으나 예수님께서 죽음을 바꾸어 사신 교회를 통해
위로와 힘을 얻기에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어요.
피곤하고 힘들고 바쁘고 삶이 팍팍할수록 더욱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이 잦고
간절함은 그 안에서 내 영혼이 먹고 쉬고 다시 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의 스물세 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기뻐합니다.
교회가 아프지 않아 내가 그 안에서 건강하고,
교회가 풍성하여 내가 그 안에서 다시는 가난한 가운데 머무르지 않듯,
많은 이들이 그 안에서 먹고 쉬고 공급받으며 다시 살아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는 언제나 돌아와 쉴 수 있는 예수님의 품입니다.

- 글쓴이 이종혜 ☺

“예배”는 “복음”에 대한 “응답”입니다

• 주일 낮 예배

경배와 찬양	10시45분부터 찬양합니다	다같이
예배의부름	찬21장 다 찬양하여라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참회의기도	영광송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3절만	다같이
대표기도		김나영집사
찬양	찬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다같이
말씀선포	잠언 9:1-18	
지혜의 초대		라종렬목사
결단&합심기도	찬375장 나는 갈길 모르니	다같이
봉헌기도		인도자
축도(강복선언)		인도자
나눔&환영		성도의교제

주일오후찬양예배

주일 오후2시
주기도문 8 일반은혜의 필요성과 한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7:30
묵상나눔모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5:30
잠언강해

• 나눔&환영

Sharing & Welcome

■ 5월 주일낮예배 대표기도자 안내 ■

1주:묵회기도 / 2주:변석정집사 / 3주:김나영집사 / 4주:이선영집사 / 5주:박다은서모

- * 새가족 환영 : 우리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목사님과 면담이 있습니다.**
- * 매일성경 5~6월호가 도착했습니다.
- 묵상의 여정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 * 기도제목
- 서성님집사님의 딸 수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 교회가족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 * 디아코노이(섬기는 사람들) 묵상나눔 모임
- 매주 수요일 오전10~12시 본교회에서
- * 책사랑(冊舍廊) 슬로레(Slow-Slow Reading)모임 안내
- 매주 목·저녁, 금·오전에 진행되는 천천히 읽기 모임

